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대통령 선거와 대학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대선 열기로 뜨거울 것이다. 벌써부터 ‘잠룡’이라고 불리는 여야 대선 후보자들의 몰입 작업이 시작되었다. 일단 당내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러 정치인들이 당 안팎에서 최대한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연줄과 선거 자금을 활용하여 지지자를 결집하겠지만 보이는 곳에서는 그럴듯한 비전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싱크탱크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가동하여 싱크탱크를 조직하고 산업과 노동, 통일과 국방, 교육과 복지, 환경과 에너지, 언론과 금융, 문화와 과학기술 등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여러 분야에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몇 주일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책 공간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를 발족시켰다. 여기에는 일차로 전국에서 500여 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했고 그 숫자는 연내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은퇴한 원로 교수들이 고문과 자문위원을 맡고, 중진 교수들이 소장, 부소장, 정책위원장, 7개의 분과위

원장을, 신진학자들이 10개의 추진단장을 맡았다고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고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연구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think tank’라는 말 자체가 두뇌 집단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 연구 조직이라는 뜻이다). 먼저 정부의 각 부처마다 소속 연구소들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행동합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행동합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그 보기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서울연구소,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들이 즐비하다.

이런 연구소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연구소들이라면 삼성·현대·엘지 등 대기업들이 만든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들이 있다. 기업연구소들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도 한다. 여당과 야당은 당내에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보좌진들도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은 두뇌들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마당에 대선을 앞두고 대학교수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급조하여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지 궁금하다. 아마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대학교수들 가운데 누가 왜 어떤 이유에서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참여하는가를 묻고 싶다. 대학에도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소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의 장점이자 강점은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에 비해 연구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면 연구의 주제나 기조가 달라지는 정부 소속 연구소나 해당 기업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기업 연구소와 달리 대학 연구소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기조가 되는 비당파적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보편적인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다. 그래서 대

학교수들의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연구에 터를 둔 공적 발언이 공신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관판을 달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싱크탱크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다면 그것은 대학교수 전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 불통과 무책임을 차마 그냥 보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소매를 건어붙이고 나섰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후보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한 자리’ 할 사람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지식인의 공정한 의견으로 보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울곧은 학자라면 연구의 자율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특정 정파의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양극화하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심을 버린 채 사회 전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발언하는 보편적 지식인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회학자·작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커피한잔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주말 박인희 광주 콘서트를 봤다. 2천석이 꽉 찼다. 대개가 무악에 무아 시절 박인희를 처음 들었을 나이대의 관객이었다. 그녀는 청초했다. 조선나이로 일흔 돌이 된 그녀. 세월이 믿기지 않는 고운 자태에 맑은 목소리도 여전히 청초했다. 분청사기의 울림 같다고 느꼈다. 듀엣과 솔로를 합쳐 10년도 활동하지 않고 홀출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녀가 조국에 돌아와 공연을 하게 된 건 어느 팬의 간곡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국엔 아직도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답니다...”

깊은 우수에 젖어 시를 읊듯 불러주는 그녀의 노래는 가늠해서 더욱 아름다웠

박인희의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떠날 수 없는 겨울 바다여.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음 음 섬머와인. 고통을 불러 본다 하얀 조가비... 곡에 맞추어 흰 손을 가만히 좌우로 흔드는 게 그녀가 하는 무대 율동의 전부. 청중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훔치기도 하고 동반자와 손을 꼭 잡기도 하면서 70년대식 아날로그의 감흥에 깊이 젖어들었다.

세상은 싸움판이고 미래는 안개에 쌓여 있으며 젊은이들은 우울한 이마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가을 중학시절의 감수성을 다시 일깨워 준 박인희의 노래로 인해 매달렸던 심성에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박인희와 그 시대 가수들이 좋은 건 곡도 곡이려니와 노랫말 때문이다. 박인희 그녀도 시집과 수필집을 낸 문학도였다. 이시대의 노래들은 인간본성을 파고드는 절절한 시(詩)들이었다. 소박한 자연을 담았으며 순정과 애뜻한 연모(戀慕)가 있다. 문학의 힘이 들어 있다는 얘기도. 밥 딜런의 곡들도 마찬가지다.

그 시대의 대중음악들은 듣는 이의 심

성을 순하게 하는 힘이 있다. 어찌 이때 뿐 이겠는가 만은 70년대 한국 가요계의 포크송들은 정말 대단했다. 암울한 시대, 저항과 좌절을 노래한 곡들 중에도 명곡이 많지만 주옥같은 서정시들로 이뤄진 곡들이 더 많았다.

생각해보면 1인당 소득 2만8000달러 시대인 지금, 1인당 소득 1000달러에 불과하던 70년대 초의 음악들이 보석처럼 느껴지는 게 아이러니하다. 역시 인간의 정서는 돈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한 걸까. 지금도 현대시들 보다는 소월과 육사와 영랑과 지용의 시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 어쩌겠는가.

고귀한 인간의 정신은 문학의 불로 달구어지고 음악의 물로 담금질되는지도 모르겠다. 박인희 시대 아름다운 노랫말의 곡들을 듣노라면 친구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더 친절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잊었던 책을 다시 보고 싶어도 코트 깃을 세운 채 홀로 걷고 싶어도 한다. 평소 함부로 대했던 후배나 친구를 불러 찌개 냄비가 끓는 저녁을 대접하고 그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 주고도 싶어진다. 흔히 인생은 사계(四季)에 비유된다.

가을은 종말을 앞둔 마지막 화려함을 보여준다. 풍요롭지만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든다. 가을의 센터멘탈은 끝이 가까워 왔음을 아는 멘탈리티다. 파티가 끝나가는 시각, 음악소리는 높지만 마지막 잔을 따르며 봄과 여름을 잔잔히 회상하는 비장미(悲壯美)는 그 또한 아름답다.

가을의 복판이다. 지난冬의 은행나무 같은 이제 곧 노랗게 물들 것이고, 수기동화신모빌의 국물은 몽게몽게 김이 오르며 더욱 구수해질 것이다. 나는 이 계절 우리 모두가 시와 음악을 가까이 하길 바래본다. 가을 음악회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좌우와 빈부가 갈리고 무슨 대통령 집사같은 여자의 행실로 나라꼴이 우습지만 잠시 번다한 뉴스에서 눈과 귀를 거두고 자신만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란다. 추억을 일깨우는 가사, 그리 빠르지 않은 리듬에 아름다운 곡을 가진 우리 대중가요들도 찾아 들으시길 권한다. 맥락 해지는 가슴, 긴 한숨과 함께 고운 당신의 심성을 다시 매만지시길 권한다. 어쩌면 다룬 뒤 연락을 끊은 친구가 생각나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걸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가을이다.

기 고

조선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유인상 변호사

조선대를 생각하면 무등산이 함께 떠오른다. 조선대는 푸른 무등산이 날아놓은 하얀 이무기 같은 인상이다. 무등산이 커다란 날개로 품고 있는 조선대. 무등산과 조선대는 광주·전남의 랜드마크다. 서정주는 ‘무등을 보며’라는 시에서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다. 그 지란이 조선대라는 이미지로 겹쳐진다.

조선대는 건물 외양부터 독특하다. 삼각형 박공으로 잇댄 독특한 건축양식은 지성을 날카로운 톱날로 버리는 곳이라는 느낌을 자아낸다. 칼 아스퍼스가 “지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대학 캠퍼스다”라고 한 말에 빗대어 말한다면 조선대는 호남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 만하다.

여기까지는 조선대 출신의 한 변호사가 내심 자랑으로 지켜보는 외견상의 모습이다. 그런데 대학이란 건물의 내부에서 창조하는 콘텐츠가 대학의 이미지와 가치를 창조한다. 조선대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더 따져볼 일이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다. 호남이 자랑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멋진 캠퍼스에서 생산해내는 가치가 과연 뛰어난 것인가, 내세를 만만 것인가.

조선대는 지난 수년 동안 학내 문제로 시끄러웠다. 그때 캠퍼스에 들어서면 학내 사태에 대한 여러 주장을 내세운 플래카드들이 숨을 멎게 했다. 옆구리에 통증을 이 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파열음’은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에 의해 현재는 잠잠한 상태이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휴학산’이기도 하다.

대학은 흔히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라고 한다. 멋진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에서 케케묵은 말이 되고 말았다. 아무도 그런 눈으로 대학을 보지 않는다. 대학은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만일 조선대에서 대학의 주체인 학생, 교직원, 동창회가 뭉쳐 새로운 비전을 세워 밀고 나간다면 조선대는 대학 스스로 외치듯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는 지금 파도쳐오는 인류 문명의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문명 패러다임이 바뀌는 21세기에 걸맞은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조선대가 호남의 대학에서 전국의 대학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다.

그 같은 조선대의 비전 실행을 위해서 인재들을 모으고, 학과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수진을 보강하는 데 과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대의 시각디자인학과,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에서 눈에 띄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종합대라 해도 모든 학과를 선두에 올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선대만의 차

별화된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 미국 칼 아츠(CalArts) 대학은 디즈니랜드가 설립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명성을 자랑한다.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바로 이 칼아츠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선대도 칼아츠처럼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도 문화나 예술을 배우려면 ‘조선대로 가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조선대는 지금보다 더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는 지난 9월 29일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했다. 새 총장도 선출했다. 이 시점에서 조선대는 단순히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무등산 등지에서 세계로 날아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발전에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대가 비상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시골시골해진다면 이제는 끝이다. 조선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교 경쟁력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선대의 비상하는 날갯짓을 보고 싶다. 조선대는 지금 다시 일어서야 한다.

社說

기재부 ‘자동차 100만 대’ 공약 이행 협조해야

광주시 최대 현안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국비 반영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국·시비 부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해당 사업 예산의 집행과 내년 예산 반영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산업기술 혁신 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 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들에 대해 국비 50%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재부의 요구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광주시 부담액은 애초 851억 원에서 1883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늘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

다. 기재부의 방침대로라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시작도 하기 힘들어진다. 기재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사업이 박 대통령의 광주 지역 최대 공약 사업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세 번씩이나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공약을 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여러 차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광주 시민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의 지원 약속을 한신씩처럼 버린 것이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애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려했던 국·시비 부담 비율에 맞춰 국비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속도제한 장치 푼 도로 위의 시한폭탄 차량들

돈을 받고 관광버스나 화물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풀어 준 운전자와 ‘살인 질주’를 한 운전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고배 풀린 이들 대형차량 중에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워킹경기를 위해 이용했던 선수단 버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 크다. 선수단 버스의 경우 워킹경기 장소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운행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잇따라 제 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김 모(45) 씨 등 무자격자 운전 정비업자 4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최고 속도제한 장치를 푼 트럭 운전기사 이 모(56) 씨 등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약 3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나 한적한 도로에서 1대당 15만~20만 원을 받고 관광·전세버스 등에 설치된 최고 속도제한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대형차량 출고 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버스는 시속 100km, 16t 화물 특수차량은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이나 검사 때 걸리지 않는 불법 최고 차량이 더 많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 안전 위협 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3.5t 이상 화물차 2만9606대가 시속 9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누적 해소 등 처우 개선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속도제한 장치 제거는 곧 살인 행위나 마천가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無等鼓

지역마다 오래된 빵집이 있다. ‘꼭 먹어야 하는’ 대표 상품은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TV 프로그램 ‘수요 미식화’에서는 안동 ‘맘모스 제과’, 서울 ‘나물래 옹과자점’, ‘이성당’, ‘성심당’, ‘궁전제과’ 등 ‘전국 5대 빵집’의 대표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세상의 ‘빵순이’ ‘빵돌이’들에게 전국 ‘빵집순례’는 하나의 즐거움이다.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빵집에 한 번씩 들르게 된다. 목포 하면 ‘코롬방 제과점’의 크림 치즈 바게트를 떠올린다. 전주 ‘풍년제과’는 초코파이가 주 품목이다. 양금빵과 야채빵이 인기인 군산 ‘이성당’에 갔을 땐 긴 줄을 보고 그냥 돌아 나온 것이 못내 아쉽다. 1920년 일본인이 개점한 ‘이즈모야’에서 출발한 ‘이성당’은 가장 오래된 빵집이다. 최근 출간된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남해의 봄날)은 1956년 대전역 노천 전빵집에서 시작한 대전 성심당이요다. 성심당에서 그 유명한 ‘튀김 소보로’를 먹어 본 적이 있어 반가웠다. 수십 년 역사에 어찌 부침이 없었겠는가. 화제가 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

빵집 순례

경의 오래된 빵집은 1973년 문을 연 궁전제과다. 3대가 이어가는 궁전제과 대표 상품은 ‘공룡알빵’과 ‘나미 파이’. 궁전제과는 최근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고 있다. 최근엔 독특한 맛으로 무장한 작은 빵집들의 약진도 눈부시다. 신생 빵집은 새로운 맛과 신선함으로, 오래된 빵집은 그 연륜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고 있다. 오래된 가게의 먹거리에는 그 가게와 함께했던 내 추억의 맛까지 더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광주 토박이라면 궁전제과에 드나들던 추억을 하나쯤 갖고 있을 테니.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